

# 취지 공감하나 개편안은 의견 대립

## 조계종 교육원 승가 기본교육기관 등 조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서 찬반 격론

전통강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을 두고 종단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다. 기본교육과정 교과개편안과 맞물려 기존 전통강원 존재와 표준화된 기본교육으로 이어지는 조정안을 두고 분열된 찬·반론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봉은사 사태로 종무행정에 타격을 입은 제33대 집행부로서는 교육원의 교육개편안마저 소통부재를 이유로 일선 교직자 등의 반발에 부딪힐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기초선원장 지환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화장 원정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상 반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중앙총회 의원 주경 스님(이상 찬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사는 기본교육기관 조정 등 교육원의 교육개편(안)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소통 뿐임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출가자수 감소 대비해야**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매년 배출되는 예비승(사미·사미니)은

300명 선인데 이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기관은 23개로 적정 학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10년간 절반 수준인 출가자수의 감소 추세를 보면 현 지방승가대학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교육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해 공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출가자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지방승가대학 예산 대비 많아**  
지방승가대학의 교육여건이 취약한 원인은 종단 예산 규모에 비해 대상기관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원철 스님은 "2005년 승가교육제도 개선위원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인 22.8%가 '일정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수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수차례 종령 개정을 통해 지방승가대학의 최소 기준을 조정해 왔다. 승가대학령이 제정된 1996년에는 학년별 정원 12인 이상 총정원 50인 이상이면 학인 정원은 1997년 개정에서는 학년별 정원 7인 이상 총 정원 30~80명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9년 개정에서는 일부 승가대학으로 학인스님이 몰려 다른 승가대학이 정원 미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년별 정원 5~40인 총 정원 20~160인으로 조정했다.



교육원장 현웅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원철 스님은 "2005년 설문결과에서 응답자 중 30%가 강원 학년별 적정 학인 수를 11~15명으로, 응답자의 28.5%가 16~20명이라고 답했다"며 "기본교육기관을 적정수로 줄이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으로 기본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지환 스님은 "수준 높은 수행자 양성을 위해서는 출가자의 개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①동국대, 중앙승가대는 학문 중심의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②전국 강원은 승

가전통교육의 중심이 되고 ③기초선원은 선 수행 중심의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정 스님은 "강원 통폐합 후 대안으로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안은 학인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케 한다"면서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상훈 스님(쌍계사 주지)은 "전통은 다른 곳에 없지만 우리가 갖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웃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불교의 강원 문화는 유일하다. 기본교육은 전통강원 형식

대로 두자"고 말했다.  
영조 스님은 "교육의 질만 우선하다 보면 습의 등을 소홀히 하기 쉽다. 집단생활을 통한 학습효과도 염두에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東大 기본교육기관 부적합

원철 스님은 "동국대는 교육내용과 환경이 출가승려의 예비승 교육과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재가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 특성 상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내용과 환경은 비비돼 있다는 주장이다.

성관 스님은 "동국대 종비생의 기본교육과정 제의는 안된다"면서 "학제간 통섭이 추세인 학문 연구 경향으로 비취봐도 동국대 등에서 이뤄지는 제도권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 #기본교육 중복 이수 폐해 심각

지방승가대학 졸업한 학인스님이 다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으로 진학하는 수가 많은 것(2010년 4월 현재 172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철 스님은 "한 스님이 4년 과정의 기본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하며 8년을 소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가자 감소와 고통화 추세를 고려할 때 종단 현실상 기본교육을 8년이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기본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스님들로 인해 지계구분에 의한 위계 대신 학년에 따른 위계가 관습화돼 승가 고유의 위계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정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화 사무처장)은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교육환경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획일화한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 #기초선원 기본기관으로 부적절

간화선을 종지종풍으로 한 조계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인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기초선원에는 한 해 30여 명의 학인이 입학하고 있다.

원철 스님은 "기초선원의 교과안 거가 정규과목이 아닌 특강 형식으로 1년에 2개월 남짓(봄·가을) 밖에 되지 않아 교육이 불충실하다. 선이 특 중심의 교재는 전문교육기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해제 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장기간 상실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초선원에 관한 허술한 학사행정 관리도 기초선원을 부적절한 기본교육기관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혔다.

지환 스님은 "기초선원에서는 결재 중에도 매일 1시간 교과학습을 하고, 해제 중에는 매일 2시간 교과 학습을 한다"면서 "실질 중심의 선원 특수성에 대해 교과목의 차별이 없다는 교육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 #종도간 소통의 중요성 재확인

정혜 스님(쌍계사 선원)은 "공청회에 피교육자인 사미·사미니도 참석했어야 했다"면서 "지난번 강사 스님들이 교육원의 의견 듣지 않고 성명서만 발표하고 나선 것도 결국 교육원의 소통 부재를 반증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우선해 전문화된 교수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교육원의 기본교육 개편안은 구조조정 대상인 강원 실무자·출신자, 동국대·중앙승가대 위상 변화 시도에 따른 동문스님 등의 반발 수렴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통폐합 문제는 양 기관에 맡기고, 강원 반발은 현 교직자 대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원이 기초선원 정원을 1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안에 관해서는 조계종 정체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조정안

## 동국대 불교대학은 기본교육기관 제외 검토

출가자 감소를 이유로 강원 등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이 대폭 구조조정 된다. 구조조정안에는 '선택'과 '집중'을 논리로 지방승가대학(강원) 통폐합과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위상 변화를 담고 있어 기본교육 교과과정 개편안과 함께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원의 조정(안)에 따르면 23개 기본교육기관 중 균형 있는 교과과정, 적정수의 교수·학인,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곳은 종단이 집중 지원해 승가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 중 원하는 곳과 기존의 학원, 율원 등은 전문교육기관(전문대학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될 전문교육기관은 한문불전·율장·선학·초기불전 등으로 특성화된다.

교육원이 정한 2005년 승가교육제도 개선위원회 설문결과에 기준을 적용시키면 현재 학년별 정원 11~15인, 총 정원 44~60인을 만족시키는 곳은 23개 강원 중 해인사·통도사·송광사 승가대학(이상 사미), 동학사·운문사·청암사·봉녕사 승가대학(이상 사미니) 뿐이다.

백양사·수덕사·범어사·법주사·불국사·화엄사·직지사·쌍계사·동화사·선운사(이상 사미), 삼선승가대학·유마사(이상 사미니)는 기본교육기관 인가 취소 등 조

치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의 기본교육기관 제외가 검토되고, 중앙승가대학은 지방승가대학을 대신해 복지, 군포교 등 국가공인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본선원의 정원은 10명으로 축소되고,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법이 정한 각종 행정 종무직 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된다.

기본교육기관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20%인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승적탈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원장 현웅 스님은 기초발언에서 "6월 중·하순 집중적으로 전문대학원 설립안과 지방승가대 교수스님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준비와 묵락

영·호남이 들쭉이 있다. 개신교계는 동화사 일대에 조성될 불교테마공원을 갖고 대구시를 상대로 탄지를 걸고 있다. 호남지역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광주시를 상대로 종교편향이라고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광선)는 정부와 대구, 동화사가 팔공산 일대에 조성할 팔공역사문화공원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

## 상대 종교에 대한 배려 필요해

계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26일에 특정 종교 편향적 예산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한다. 또, 팔공역사문화공원에 앞서 조성될 국제관광선원과 내년 치러질 대경경문화축전에도 찬물을 끼얹을 심산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날'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이 옛 도청에 입성한 5월 21일로 변경했다. 공교롭

게도 부처님오신날과 겹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종교차별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 올해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5월 21일(부처님오신날) 하루 전·후일로 변경해 실시하기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신교는 불교문화가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정부 돈이 남에게 쓰이는 것에 배아파하고, 불교계는 '내 잔치가

우리 잔치여야 한다'는 상(相)에 간혀버린 것 아닐까? <법구경>에는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맞으라시니"라고 했다. 내 주장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봉은사 대중의 지극한 기도가 모여 도량 정비, 사부대중 공동 운영 시스템, 사찰 재정 공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 등 불교계의 지형을 바꿀 만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은사 대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역량을 세웁니다. 희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봉은사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는 서원을 향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대표전화 : 02) 3218-4800 / 신도회 : 02) 516-6630 / www.bongeunsa.org

